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성경말씀: 눅8:22-25

두 주 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의 씨, 사람의 마음은 씨를 받는 밭과 같다.

씨는 문제가 없으므로 밭만 잘 준비되면 많은 열매를 낸다.

1. 길가, 새들이 먹음(마귀의 말씀 제거), 열매 No! 2. 바위, 즉시 기뻐하는데 뿌리가 없어 잠시 민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다. 열매 No! 3. 가시나무들,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음. 그런데 나무가 자랄 공간이 없음. 복잡한 흙, 숨 막혀 죽음, 열매 적거나 나쁨! 4. 좋은 땅, 100배 결실

1-2는 열매를 내고 2-3은 내지 못함, 핵심은 말씀과 밭의 관계, 마음 밭이 좋아야 열매를 낸다.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잠4:23), 딱딱한 마음을 깨야 한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한다(8, 18). 롬10:17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옴(19-21)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의: 21절, 듣고 행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이 진정한 어머니요 형제 배경(22)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세 복음서, 중요한 사건

22절: 사역을 하는 어느 날 북서쪽의 가버나움을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갈 일이 생김(마8장 참조).

갈릴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잇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의 땅),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이방인들의 갈릴리', 경계가 두로와 시돈이었고 또 거기에 페니키아, 시리아, 아랍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용감하고 근면했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우둔하고 예의가 없고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투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고(행1:11; 2:7) 물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모욕하는 이름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어려서부터 서른 살이 되기까지 여기서 살았고 공생애 중에도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갈릴리 호수: 요르단 강이 북쪽에서 나와 이것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며 이 호수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1킬로미터와 10킬로미터이고 깊이는 50미터이다. 바다라고 불림. 이 호수에는 가끔씩 폭풍이나 회오리바람이 불며 이것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 주님은 종종 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안식하셨고 여기를 건너 이동하곤 하셨다. 또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이곳을 잔잔하게 하시고 기적과 가르침으로 이 바다가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다. 물론 여기에서 그분의 제자들 중의 몇 사람이 부름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마4:18; 14:22; 눅8:22; 요21:1).

23절: 주님은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폭풍이 내리침, 호수는 해발 -150~209미터, 레바논 산에서 찬 공기가 깔때기 같은 계곡을 따라 내려와 더운 공기를 만나면 큰 폭풍이 일어남. 그들이 위험에 빠짐,

24절: 주님을 깨우니 주님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고요하게 됨

25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4-21절의 듣는 것과 마음, 그 결과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부족한 믿음의 부족: 공생애 시작, 눅4장: 부정한 마귀의 영 내쫓음(36),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꾸짖음(39), 병자들을 고치심(40), 마귀들을 꾸짖으사 내쫓으심(41), 눅5장: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 주심(1-11),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심(12-15), 마비병 환자를 고치고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심(17-26), 눅6장: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침(6-12), 눅7장: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침(1-10),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림(11-16)

구원받고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아직도 제자들 자신이 체험한 것은 없었다.

폭풍우 사건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직접 일어난 사건, 이때에 성도의 믿음이 드러난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어려움이 생겨야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이 드러난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단숨에 그분께 순종함

제자들이 의아히 여긴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의 목수, 십자가에 죽은 우리의 구원자로, 희생양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서로 다른 인격체(지정의) 권능과 영광 등 본질에서 동등함
 인류의 구속을 위해 초림 시 사람을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셨다가 재림 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동안에만 직무 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름
 그러나 1000년 왕국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직무상의 이런 우열 관계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 세상의 창조자시요, 주인이시므로 종은 주인의 말에 따른다.
 시148편: 예수님은 천사들을 포함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요1:1-3).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몸의 부활을 이루실 수 있다.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수 있다(휴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폭풍이 와도 이길 수 있다.

롬5:1-6

인생의 폭풍

불신자의 경우도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 모두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시련을 겪었다: 여름에 '이병철 자서전'
 가난, 슬픔, 비통함, 배신, 노력해도 안 돼서 죽고 싶은 마음, 부부 갈등, 부모자식 갈등, 교회 갈등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변영 신학, 만사형통 신학과 정면충돌

바울의 경험(고후1:8-10)

제자들의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신다: '우리의 본보기'

그 이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평안하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느냐?

구약 시대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 하나를 제어하지 못한단 말인가?

내 인생의 폭풍

반공 포로로 풀려난 무일푼의 아버지, 조실부모하여 역시 무일푼의 어머니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폭풍: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가난과 싸우며 살았다.

1976년 고2 봄에는 어머니가 화상을 당해 거의 돌아가실 뻔함

1982년 유학 갈 무렵에는 아버지가 만성 신부전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함

석사 과정 중에 실험이 되지 않아 고민함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 비자가 필요한데 받을 수 없어서 캘거리로 이주, 영하 30-40도

차도 없이 사는데 첫 아이 1달 조산함, 아내가 그 추운 거리를 걸어서 병원에 다님

돈이 없어서 생후 3주된 아이를 데리고 야반도주, 미국행 비행기

1988년 박사를 마치고 수백 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취직이 안 됨

한국에 들어와서 다닐 교회가 없어서 10여 년을 고생함

2001년 9월부터 목사가 되어 교회를 시작했다가 1년 반 이후 망함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아내와의 갈등이 최고조, 화병이 생겨 죽을 지경

몇 년간 수고하여 2000년 8월 흥정역 성경 초판을 출간하였으나 판매 부진

그 이후로 지금까지 4번 더 교정하여 2011년 400주년 판까지 냄, 목사들/선교사들의 반란

새롭게 사랑침례교회를 하는 동안 400주년 성경을 내 이후 불면증의 엄습(6개월 동안 치료)

2년 전에는 에스더 차가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전복되는 사고

이런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특히 한국에 와서 교회와 성경 사역 하는 동안 많은 배신과 모욕 그리고 중상모략을 당했다.

그런데 돌아켜보면 이것이 나를 성장하게 한 원동력: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계셨다.

결론

인생에 폭풍이 온다. 오지 않으면 좋지만 오게 되어 있다. 오면 이길 힘을 주신다(롬8:28)